

전주 가공식품 홍보관 '전주맛배기' 개관

한옥마을에 지역 농산물 활용 15종 가공식품 전시

미나리막걸리와 미나리만두, 복숭아식혜, 전주비빔면 등 전주만의 가공식품을 한눈에 확인하고 맛볼 수 있는 홍보관이 전주한옥마을에 문을 열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29일 한옥마을(완산구 은행로 82-12)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가공식품을 홍보하는 공간인 '전주맛배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전주음식, 어디까지 상상해 봤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마련된 전주맛배기는 전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전시 및 시식·시음 등을 통해 전주의 다양한 맛을 체험하고, 가공식품의 특색 있는 변신을 만나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이 홍보관에는 △전주미나리주 △미나리만두 △복숭아식혜 △전주모주초콜릿 △복당이떡 △미담은 생생 프루바이오틱스 △노매디 브루잉 전주수제맥주 △전주비빔면 △도라지수제카라멜 등 전주시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이 개발 지원한 15종의 가공식품이 전시



29일 한옥마을(완산구 은행로 82-12)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가공식품을 홍보하는 공간인 '전주맛배기'가 개관했다.

된다. 또 가공식품을 테마별로 무료 시식할 수 있는 행사도 매일 운영된다. 일례로 10월에 미나리빵, 미나리만두, 복숭아식혜, 복당이떡 등 미나리와 복숭아를 주제로 열린다면, 11월에는 전주초콜릿과 찹쌀떡, 미나

리엿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제로, 12월에는 비건(Vegan) 식품을 주제로 마련되는 방식이다. 전주맛배기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식행사는 금요일과 토·일요일에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시는 전주맛배기를 통해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전주만의 특색 있는 가공식품을 소개함으로써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전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먹거리정책과 관계자는 "시식행사 및 소비자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품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전주맛배기가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나리막걸리는 미나리 착즙에 인공감미료를 넣지 않은 천연 막걸리로, 음주 후 부작용과 속쓰림을 방지하면서 트립 현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나리만두는 소비자들로부터 향긋하고 담백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전주의 밀가루를 활용해 만든 전주비빔면은 쌀가루를 첨가해 면의 쫄쫄한 식감을 살린 건강식으로 개발됐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29일 전주시장실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정태석 35사단 전주완주대대장과 김상화 22사단 군의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대응 군 관계자에 감사패 전달

전주시, 정태석 35사단 전주완주대대장·김상화 22사단 군의관에 전해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 업무 지원에 나서준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9일 전주시장실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정태석 35사단 전주완주대대장과 김상화 22사단 군의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방역을 위해 솔선수범해준 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정태석 대대장은 종합경기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2만2000여 건의 문진표를 접수하는 등 행정 업무는 물론 선

별진료소 소독 등 진료소 운영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5사단은 지난 3일부터 정태석 대대장을 비롯해 하루 8명의 현장인력을 투입해왔다.

또 김상화 군의관은 덕진예방접종센터에서 3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예진을 담당해왔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주신 군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위기를 넘어서야 우리가 꿈꾸던 일상의 회복이 가능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10월 1일~11월 30일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전주시가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지난달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들의 보충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2차 보충교육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1~4년차, 5년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 3만8000여 명 중 상반기 교육이나 1차 보충교육(8월)을 이수하지 않은 5500여 명이다.

대상자는 PC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에 링크된 민방위 사이버교육 배너를 클릭해 수강하면 된다. 교육은 △민방위 제도 과정(민방위 제도의 이해) △역할 실습 과정(민방공 대피요령·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재난 대비 행동 요령) 등 2개 과정, 4개 과목으로 1시간여 동안 운영된다. 객관식 평가 20개 문항 중 14개 이상을 맞춰야 교육이 이수된다.

현황에 참여한 대원의 경우 증빙자료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김윤상 기자

선미촌 문화재생 성과 공유·활성화 방안 모색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북지회·LX, '선미촌 2.0 도시계획적 관리 방향 관한 세미나' 개최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한 선미촌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북지회(지회장 김진)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9일 전주시혁신센터 다목적홀에서 학회 위원들과 선미촌준비민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미촌 2.0 도시계획적 관리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선미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정명수 전북대학교 명예총장은 "국토상 전주시의 위상"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다. 박정원 UB 도시연구소장과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각각 '선미촌 1.0 성과와 향후과제'와 '선미촌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 이후에는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예술가, 여성인권 활동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인디,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선미촌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더 확대하는 등 선미촌을 더욱 활성화시킬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김윤상 기자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LX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선미촌 2.0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계획 전문가 및 선미촌준비민간협의회 위원, 예술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선미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동물친화도시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39곳의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2000마리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만큼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비용은

평소 2만 원 안팎이지만 오는 31일까지 예방접종을 할 경우 약 5000원의 접종수술비만 부담하면 된다.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한 동물병원을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확인한 뒤 병원에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다만, 광견병 백신이 한정돼 있어 기간 내라도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동물복지과(063-281-5079)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2000여 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